

# 佛家 寺刹題詠詩의 문학적 지향

김석태\*\*

<차례>

- 1. 머리말
- 2. 佛家 寺刹題詠詩의 전개
- 3. 寺刹과 그 주변 자연의 형상화
  - 3.1 脫俗閑靜
  - 3.2 修行悟道
  - 3.3 仙界志向
  - 3.4 詠史懷古
- 4. 맺음말

## 1. 머리말

사찰은 누정과 더불어 중요한 문학 창작 공간이었다. 그러나 누정의 문예 활동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나 사찰문학에 대해서는 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전문학시대 사찰에서는 고승의 문학 활동이 면면히 이어졌으며, 불자와 유자의 교유수창, 수행승 간의 수답·차운, 유불을 막

론한 제가들의 사찰제영, 경물, 영사, 회고 등 다양한 양상의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문학 작품이 창작되었다. 사찰에 주석했던 고승과 유불을 막론한 사찰 출입 인사들의 사찰을 배경으로 한 문학, 사찰을 매개로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조성된 문학 등 사찰과 관련된 일련의 문학을 寺刹文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문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寺刹題詠詩이고, 이에 고승들의 제영이 근간을 이룬다. 사찰 제영시는 작자를 기준으로 불가와 유가의 그것으로 대별된다. 이들의 사찰 제영시는 창작계기, 내용과 주제 등이 서로 달라 비교 연구의 가치가 있다. 누정문학의 주체가 유가 사대부 계층 문인들이듯 사찰문학은 고승들의 문학이 중심이 된다. 사찰을 배경으로 한 고승의 시는 고려, 조선을 거쳐 20세기 전기까지 이어진다.<sup>1)</sup> 특히 불교의 교세가 위축되었던 조선시대에 그 시문들이 오히려 풍부하게 창작되어 개인문집, 사지를 비롯한 문헌들에 전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찰문학의 중요한 부분인 고승의 사찰제영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고승의 사찰문학이 불교의 정신세계와 역사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사찰문학의 면모를 온전히 조명하기 위해서는 동어반복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중심을 이루는 고승 사찰제영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찰제영시 관련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병수는 羅末麗初·高麗時代·朝鮮時代로 시대를 구분하여 우리나라 사찰제영시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논하였다. 저자는 여기에서 시대의 풍상에 따른 제영시의 전개 양상을 밝혔다.<sup>2)</sup> 김갑기는 사찰제영시를 중심으로 문화공간으로서의

1) 신라인으로 중국 九華山에서 활동했던 金地藏의 〈送童子下山〉과 같은 예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고려 이전의 사찰문학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찰제영 한시는 鑑眞寶鼎(1861~1930), 石巖鼎鎬(1870~1948) 등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다.

2) 閔丙秀, 『韓國 漢詩와 寺刹』, 『韓國 漢文學 散藁』, 태학사, 2001.

\* 전남대학교

사찰을 논하였는데, 음악, 무용, 미술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사찰 제영시의 의미를 살폈다. 또한 사찰이 승·속간에 더없는 문화예술의 창작 및 시연장이었으며 문화의 보고임을 논하였다.<sup>3)</sup> 이종묵은 羅末에서 麗末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사찰제영시의 작법과 문예미를 살폈는데, 崔致遠·朴仁範·朴寅亮·鄭知常·金富軾 등의 역대 명편들을 대상으로 사찰 제영시의 유형과 전형, 개성과 문예미 등을 밝혔다.<sup>4)</sup>

박수천은 지리산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사찰제영시를 고찰하였다. 주로 사대부들의 한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리산의 사찰 제영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승들의 제영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sup>5)</sup> 용환진은 관동팔경 연구의 하나로 洛山寺 題詠 漢詩를 고찰하였다.<sup>6)</sup> 그리고 호남의 특정지역 사찰제영시의 양상을 논한 것도 있다.<sup>7)</sup>

기존 연구는 역사적, 문학적 측면에서 사찰제영시의 성과와 개성을 논한 것과 특정지역의 사찰 제영시를 연구한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사찰제영시 연구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기존 사찰제영시에 대한 연구는 역대 회자되었던 사대부 계층의 명편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 되었고 사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가의 사찰제영시를 집중 조명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고려말부터 조선말에 이르는 불가 사찰제영시의 주요 양상을 네 가지로 대별하여 논하고자 한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작자와 시적 대상의 만남, 즉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기본 축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사찰은 시적 대상이자 문학 창작의 배경 공간이며, 산중 수행을 본분으로 하는 수행승의 삶터로서 의미가 있다. 사대부 계층에게 사찰은 學習·清遊의 장으로 제공되어 景物詩의 중요한 素材源이 되었다. 그래서 고려조까지는 명편이 제조되기도 하였으나, 배불승유의 조선조에는 樓亭 계열 시작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사찰제영시는 그 물량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이게 되었으며 명편은 간헐적으로 산견될 뿐이었다.<sup>8)</sup> 그러나 불가문학에서는 문집이 집중적으로 양산되었던 조선시대에 오히려 다양한 사찰제영시의 전개 양상을 볼 수 있다. 사찰의 가치가 사대부 계층과 분명하게 달랐던 승가의 입장에서 조성한 제영시는 그 문학세계 또한 나름대로의 개성과 가치를 지닐 것이다.

본고는 大覺國師 義天(1055~1101)으로부터 근대의 石顛鼎鎬(1870~1948)에 이르는 불가 문집 소재 사찰제영시를 대상으로 불가 사찰제영시의 주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약 300수<sup>9)</sup>에 이르는 이들 제영시를 대상으로, 소수 작품의 정칙한 분석보다는 동일 유형의 작품들을 되도록 많이 예거함으로써 불가 사찰제영시의 주요 양상과 면모를 조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3)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寺刹)－사찰제영시(寺刹題詠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조선후기 寺刹題詠詩攷』, 『한국언어문학연구』 제48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7.2.

4) 이종묵, 『寺刹題詠詩의 作法과 문예미－羅末에서 麗末까지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5) 朴守川, 『智異山의 寺刹 題詠 漢詩』, 『韓國漢詩研究』 7, 1999.

6) 용환진, 『洛山寺 題詠 漢詩 研究』, 『한문고전연구』 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5.

7) 줄고, 『湖南의 寺刹 題詠詩－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41호, 2007. 12.

8) 민병수, 앞의 책, 533~556쪽.

9) 현전하는 약 100종의 불가문집 중에서 불가문학상 중요성이 언급된 적이 있거나 그럴만한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 30명의 불가문학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주요 작가의 사찰제영시만도 수 백 편이 넘는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 살펴 본 300수란 그 중에서 선별한 작품을 말한다.

## 2. 佛家 寺刹題詠詩의 전개

우리나라의 사찰제영시는 나말여초에 이미 최치원·박인범·박인량 등에 의해 명편이 제작되었다.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대각국사 의천 이후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약 100종의 불가문집에 다수 수록되어 있고 여타의 문헌들에서도 산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문헌에 불가의 사찰제영시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데 불가문집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동국여지승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 가지 예로 고려말의 慧日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는 불가 시문학상 최초로 제주도 관련 시문을 남겼는데, 제주도 소재 妙蓮寺·普門寺·逝川庵·法華寺 등 사찰제영과 제주를 노래한 시를 포함하여 모두 5편의 제주관련 시<sup>10)</sup>를 남겼다. 이러한 경우는 문집에서 확인해 볼 수 없는 자료라는 점과 제주도 관련 불교문학이 상대적으로 소략한 상황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저자 자신이 불교인으로서 쓴 이러한 제영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불교와 사찰의 역사를 상고하는데 간접적인 사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sup>11)</sup>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생애를 다하는 삶의 장으로 사찰을 인식하는 저자 자신의 특성상 사대부 계층의 제영시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찰이 삶의 장이었던 詩僧들에게 사찰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 예로 다음 16세기 虛應堂 普雨의 시를 보자.

春山無伴獨尋幽	봄 산에 벗 없이 홀로 깊은 곳 찾아드니
挾路桃花蹴杖頭	길가 복사꽃이 지팡이 끝에 차이네
一宿上雲疎雨夜	하루 묵는 상운암 성긴 비 내리고
禪心詩思兩悠悠	禪心和 詩思가 아득히 깊어가는구나

『虛應堂集』下, 〈宿上雲菴〉<sup>12)</sup>

경기도 화성군 淸溪山에 있던 상운암에서 하루 묵으면서 지은 시이다. 밤 비 내리는 암자의 고적함 속에서 禪心과 詩思가 함께 悠悠하게 깊어 간다고 한다. 수행승이자 시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시승들에게 있어서 사찰은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詩心을 淸遠하게 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시승에게 사찰은 종교와 문학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주로 探勝과 淸遊의 공간으로 사찰을 받아들였던 사대부 계층의 사찰제영시와 불가의 그것이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산사에서 종교 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했던 고승들은 늘 주변의 풍광으로부터 感發한 시심을 시로 표현하였는데, 어떤 경우는 사찰의 이름 자체가 시가 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 梵海覺岸의 시에서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十一庵號〉<sup>13)</sup>라는 시에서 자신이 주석했던 大菴寺가 있는 두륜산 일대의 淸神庵·明寂庵·赤蓮庵·眞佛庵·南彌勒庵·挽日庵 등 암자 이름 11개로 7언율시를 지었다.

또한 사찰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경관도 작시의 배경이자 시문 조성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고려 후기 無衣子 慧諶은 〈留題金剛庵〉<sup>14)</sup>에서 南臺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11) 慧日의 제영시에 관해서는, '줄고, 『梵海 覺岸의 濟州 旅行과 紀行詩』, 한국언어문학 제55집, 2005.10.'에서 논하였다.

12) <韓佛全>7-551.

13) “尋眞去處起淸神, 行到東岡新月親. 明寂蕭條深寂寞, 赤蓮爛漫導船輪. 降臨眞佛雨花贊, 特立南彌挽日竣. 北塔齊天空界在, 山庵十一望中.” 『梵海禪師詩稿』 卷一, <韓佛全> 10-1102.

14) 이 시는 7언절구 5수로 되어 있으며, “此山可寶, 世號金山, 有石可榜, 俗名額石. 荆庵長者, 常讀金剛貝經, 題以爲庵額, 劫火洞燃毫末盡, 此庵依舊此山中者乎.” 라는 주

石額·石禪床·東臺卽事·西臺卽事·卷栢 등 금강암 주변의 누대와 사물을 대상으로 연작시를 지어 심회를 토로하고 풍광을 노래했다. 조선후기의 無用秀演은 〈新德精舍十詠〉<sup>15)</sup>에서 覺齋夜誦·普庵晨鍾·玉峰矮松·葦淵魚躍·蘇堤臥牛 등 신덕정사 주변의 아름다운 경물 10가지를 대상으로 시를 지었다. 사찰제영시이면서 ‘十詠’이라는 이름의 경물시를 조성한 것이다. 艸衣意恂은 〈佛國寺懷古九首〉<sup>16)</sup>에서 불국사에 들어서면서 紫霞門·白雲橋로부터 시를 읊어 다시 紫霞門을 나서 불국사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 수를 읊는 형식으로 불국사 곳곳을 시로 형상화하고 그 역사를 읊었다.

이렇듯 불가문학 작가들은 종교인이며 作詩에 고심했던 시인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사찰제영시의 세계를 구가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불교가 처한 입장이 매우 달랐으며 그에 따라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성격 또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찰이 중요한 문학의 배경이자, 소재였으며 사찰과 그 주변 자연풍광이 창작의 계기가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문학 속에 형상화 한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禪機 높은 불교시, 탈속한정·물아일체의 자연시, 우화등선의 선계지향시, 古刹의 역사를 읊은 영사회고시 등 승속, 시공을 입체적으로 종합하는 다양한 문학세계를 형상화하였다. 불가 사찰제영시의 주요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작품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3. 寺刹과 그 주변 자연의 형상화

#### 3.1 脫俗閑靜

사찰은 산중불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 세속과는 절연한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그 입지조건 때문에 현세적 삶에 몰두한 세속과는 대비되는 탈속한정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잠시 세속의 번잡함을 떠나 휴식을 겸한 유람의 길에 산사를 찾은 사대부 문사들의 그것과는 다른 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다. 사대부의 사찰 방문은 일회적, 일시적인 활동이지만 출가인에게 사찰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한 사찰에 주석하느냐와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고려시대 진각국사 혜심은, ‘만학천봉에 둘러싸인 작은 암자에 세속의 한 점 티끌도 날아들지 않아 하늘이 한정 도인을 살게 하였다.’<sup>17)</sup>고 하였다. 조선후기 括虛取如是 금강산 포훈사의 산내 암자인 圓通庵을 두고, ‘암자가 산 높은 언덕에 있어 사립문도 없이 종일토록 세속의 마음을 잊고 좌선하는’<sup>18)</sup> 공간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구월산 月出庵에 대해서는, ‘높은 절벽에 매달린 듯, 머리위의 별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듯 아득히 멀고 영묘한 곳에 하루 머물면 세속을 떠난 연유를 알 것 같다’<sup>19)</sup>고 하였다. 이렇듯 사찰은 세속의 먼지가 미치지 않을 만큼 멀고 높고 깊은 곳에 위치하며 그 물리적인 거리는 세속과의 정신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인이 세속에

17) “雲奔浪卷萬峰圍，中有孤庵畫不如。一點俗塵飛不入，天教閑靜道人居。”〈題楞伽山妙德庵筠長老舊居〉，『無衣子詩集』下卷，〈韓佛全〉6-54.

18) “庵架山高處，從來不設扉。居僧三四輩，終日坐忘機。”〈圓通庵〉，『括虛集』，〈韓佛全〉10-306.

19) “丹崖百尺小庵懸，頭上星辰手可攀。水從石間流素練，薨浮雲外挂青天。飛龍舞鳳當窓畔，化佛癡仙列案前。一宿靈區真有分，也知身世出塵緣。”〈九月山月出庵〉，『括虛集』卷二，〈韓佛全〉10-312.

가 있어 시의 이해를 돕고 있다.

15) 『無用堂遺稿』，〈韓佛全〉9-346.

16) 『艸衣詩藁』卷上，〈韓佛全〉10-835.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을 때 세간과 출세간의 거리는 더욱 분명하다.

夕陽來倚歇惺欄 석양녘 혈성루 난간에 와 기대면  
萬二千峯各露顏 일만 이천 봉 저마다 얼굴을 드러내네  
莫把玉容傳俗客 욕 같은 모습을 속객에게 전하지 말라  
風光嫌入是非間 풍광은 시비 다름에 빠지기 싫어한다네  
『括虛集』 卷一, 〈正陽寺歇惺樓〉<sup>20)</sup>

혈성루는 정양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하여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여기에서 보이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속객을 통해 전해져 세속의 시비에 빠질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도 그의 〈宿伽耶山天城寺〉시에서, “세상길은 위험이 많은데, 산문은 차분하고 고요하다.(世路多危嶮, 山門鎮寂寥)”<sup>21)</sup>고 하였다. 조선시대 月渚道安의 〈重遊遮岩庵述懷〉<sup>22)</sup>, 梵海覺岸의 〈美黃寺上岫菴〉<sup>23)</sup>, 無用秀演의 〈次寶林寺壁上韻〉<sup>24)</sup> 등에서도 세속을 욕망으로 가득찬 세계라 하고 그곳을 떠난 산중의 한정을 노래하였다. 근대의 石顛鼎鎬 또한 〈七寶庵口號〉에서 ‘어리석은 이들 향해 시정에서 떠들었던 일이 부끄럽다.’<sup>25)</sup>고 하였다. 말하자면 세속은 貪瞋癡 三毒의 번뇌로 가득찬

곳이요, 그곳에서의 번잡한 삶은 산사에 들어섬으로써 말끔하게 정화되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한편,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삶의 공간으로서 사찰 자체의 가치에 비중을 둔 시들을 볼 수 있다. 振虛捌關은 〈解脫庵〉<sup>26)</sup>에서 바위에 둘러 싸여 흰 구름 이는 암자의 경계를 말하고 ‘세속의 번뇌가 절로 가벼워지네’라고 하였다. 고려의 圓鑑國師 冲止는 圓炤庵이라는 작은 암자에 쓴 시에서 ‘세속의 五侯萬乘의 부귀영화도 잊어버렸으니 세상에 누가 衲子만큼 존귀할 것인가’<sup>27)</sup>라고 하였다. 작은 암자에 문을 닫고 수행하는 출가승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낸 것이다. 조선시대 불가의 시에서는 이렇게 직설적인 자부심을 읽기 쉽지 않지만, 위의 振虛捌關의 시처럼 세속의 번뇌를 말끔히 씻고 정신의 고양과 안식을 추구한 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白谷處能은 산사에서 느끼는 탈속한 기쁨을 “……비 개니 새 기쁘게 지저귀고, 구름 짙어 꽃 그림자도 짙네. 열흘의 여정에 겨우 이틀 밤 묵고, 세상번뇌 씻어 내니 더욱 기쁘구나.”<sup>28)</sup>라고 하였다.

古院無塵枕碧山 한 티끌도 없는 옛 절 푸른 산을 베고 누워  
雙扉關閉白雲間 두 짝 사립문은 흰 구름 사이에 열고 닫네  
一瓶一錫爲生計 물병 하나 석장 하나로 생계를 삼고  
年去年來也等閒 해가 가고 해가 와도 늘 그렇게 한가롭네  
『大覺國師文集』 卷十九, 〈留題洪去院〉<sup>29)</sup>

20) 《韓佛全》 10-307.

21) 『大覺國師文集』 卷二十, 《韓佛全》 4-565.

22) “再到曾遊地, 居禪慣識名. 烟霞舊舊跡, 鳥獸各忘情. 缺月窺天白, 交河映地明. 世間眞火宅, 奔走幾勞生.” 〈重遊遮岩庵述懷〉, 『月渚堂大師集』 卷上, 《韓佛全》 9-84.

23) “上頭古閣具新容, 借問何人作大功. 玉鏡平開沈日海, 錦屏齊列柱天峯. 無風奔走騎神虎, 不雨飛騰畫棟龍. 恐洩世間名字垢, 一區蘭若白雲封.” 〈美黃寺上岫菴〉, 『梵海禪師詩集』 卷二(補遺), 《韓佛全》 10-1125.

24) “妙年身外撥虛名, 自得階除鳥不驚. 朝鏡掛西蘿月白, 夜絃鳴北竹風清. 青圍岸柳鶯聲滑, 紅綻庭梅蝶翅輕. 世客何知林下樂, 滿腔空載宦遊情.” 〈次寶林寺壁上韻〉, 『無用堂遺稿』 卷上, 《韓佛全》 9-348.

25) “出水芙蓉似競高, 更看姹女卷尾毫. 飲來玉井低回久, 羞向癡人說市朝.” 〈七寶庵口號〉, 『石顛詩鈔』 卷下.

26) “解脫知名社, 圍巖號七星. 捲簾看鶴舞, 憑几聽猿聲. 紅日吟邊上, 白雲望裏生. 所藏眞若此, 塵慮自然輕.” 『振虛集』 卷一, 《韓佛全》 10-171.

27) “小院寥寥冬日溫, 和衣展脚畫關門. 五侯萬乘軍忘却, 世上誰如衲子尊.” 〈圓炤庵壁上舊題 見而錄之〉, 『圓鑑國師歌頌』, 《韓佛全》 6-390.

28) “轉入江城寺, 初從石谷村. 客稀春阻路, 僧至夜敲門. 雨霽鳥聲悅, 雲濃花影昏. 一句聊信宿, 還喜滌塵煩.” 〈題江城寺壁上 二首(其一)〉, 『白谷集』 卷一, 《韓佛全》 8-314.

29) 《韓佛全》 4-562.

산사란 세속과 대비되면서 그 가치가 부각되기도 하지만, 이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심산유곡의 산사 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枕肱懸巖은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골짜기 깊고 깊어 두견새 울고, 구름과 물이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어 티끌 세상과 먼 곳으로 산길 가득 이끼가 덮인 곳’<sup>30)</sup>이라고 하였다. 굳이 세속을 대비시키지 않더라도 산사의 입지 자체만으로도 세속과 차원을 달리하는 탈속한정의 공간임을 이렇게 읊은 것이다. 涵月海原은 “천봉우리 하늘을 지탱해 솟았고, 백 골짜기 샘물 바다물 마르잖게 흐르네. 티끌세상 누가 산중의 즐거움 알까 나는 오늘 넉넉히 한가하게 노니네.”<sup>31)</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여유가 있어 中觀海眼은 만족할 줄 알라고 세상을 향해 은근한 충고를 하기도 한다.<sup>32)</sup> 黠庵最訥은 “경계는 고요하여 낮에도 사립문 닫아두고, 객을 보내는 일 아니면 문 나서기도 드무네. 꿈같은 세상사 번거롭게 물어 무엇하리, 앉아서 봄 산을 대하니 세월도 더디네.”<sup>33)</sup>라고 하였다. 또한 蓮潭有一은 인간세계의 때 묻은 이름을 등진 구름과 달 같은 심신은 본래 如如한 것<sup>34)</sup>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세속은 火宅<sup>35)</sup>이며 사찰은 俗塵을 떠난 청정한 세계로 형상화하였다.

30) “春風一錫向曹溪，洞府深深杜宇啼。雲疊水重塵世遠，葉齊山路綠苔迷。”『枕肱集』卷上，〈題松廣寺〉，〈韓佛全〉 8-347.

31) “快登龍巖上層頭，中有禪宮暫許留。僧拂錫歸雲裡寺，竹迎霜翠澗邊秋。千峯石補天傾聳，百谷泉憂海渴流。塵世誰知林下樂，我能今日得閒遊。”〈登石泉庵〉，『天鏡集』卷上，〈韓佛全〉 9-610.

32) “檻側移花兼蝶至，山前動石得雲饒。由來世事當知足，誰道生涯欠木奴。”〈大隱庵新居〉，『中觀大師遺稿』，〈韓佛全〉8-210. 3·4구에서 ‘세상사 원래 만족을 알아야 할지니, 한 생애 나무열매로는 부족하다 누가 말하는가.’라고 하였다. 木奴는 감귤나무 또는 그 열매, 유실수의 총칭. “木奴千，無凶年，蓋言果實可以市易五穀也。”『齊民要術·種梅杏』.

33) “境寂人間晝掩扉，不因送客出門稀。南柯世事何煩問，坐對春山歲月遲。”〈居隱寂庵〉，『黠庵集』卷初，〈韓佛全〉 10-6.

34) “平生性癖愛幽棲，聞有名區必卜居。白衲即今無惠遠，青山從古有匡廬。晨鍾響落長春洞，春水流成九曲溪。莫澆人間名字垢，身雲心月本如如。”〈題大菴上院〉，『蓮潭大師林下錄』，〈韓佛全〉 10-218.

### 3.2 修行悟道

淸虛休靜은 5언고시 〈頭流內隱寂〉에서 대여섯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암자에 이웃해 사는 일상의 삶을 노래했다. 여기에서 그는 달 비친 산골물길어 차를 달여 마시며 날마다 서로 의논하는 일이란 염불과 참선<sup>36)</sup>이라고 말한다. 청허휴정의 4대 제자 중 한 사람인 逍遙太能은 “상서로운 기운이 감싼 石龕에서 부처님 앞에 향 피우고 예경하니 심신이 적멸하여 탐욕이 어찌 싹틀 것인가<sup>37)</sup>”라고 읊었으니, 사찰은 바로 출가 수행승의 본분이 행해지는 곳임을 이룬 것이다. 사찰이 수행과 깨달음을 이루는 도량임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나 문학에 구현된 수행과 오도의 정신경계를 고승의 제영시를 통해 살펴보자.

天開寶界藏無盡  
削立圭峰勢欲崩  
榮辱人間消息斷  
白雲常護坐禪僧

하늘이 열어 둔 寶界 무진장하고  
깎아지른 圭봉 무너질 듯한 형세  
영욕의 인간세상 소식 끊어지고  
흰 구름은 항상 좌선하는 스님을 外護하네

『月城集』，〈大隱庵〉<sup>38)</sup>

迢遞嵩峯下  
秋晴古寺深  
客來留一宿  
松月助禪心

멀고도 높은 산봉우리 아래  
맑은 가을 옛 절은 그윽하구나  
나그네 와서 하룻밤을 머물 제  
소나무 달이 참선하는 마음을 돕네

『枕肱集』卷上，〈金華山澄光寺〉<sup>39)</sup>

35) 번뇌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에 타고 있는 집에 비유한 말.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法華七喻) 중의 하나.

36) “有僧五六輩，築室吾庵前。晨鍾即同起，暮鼓即同眠。共汲一澗月，煮茶分青烟。日日論何事，念佛及參禪。”『淸虛集』卷一，〈韓佛全〉 7-670.

37) “一竿脩竹建精藍，瑞氣祥雲擁石龕。香火金壇修敬盡，身心寂滅豈萌貪。”『逍遙堂集』，〈題燕谷寺香閣(其一)〉，〈韓佛全〉 8-188.

38) 『韓佛全』 10-394.

寶界는 七寶로써 멋지게 장식된 세계로 부처의 정토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시 모두 ‘削立’·‘迢遞’과 같은 표현으로 사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만큼 高遠하다는 것인데 ‘白雲이 坐禪僧을 외호’하고, ‘松月이 禪心을 돕는다’고 시를 마무리하였다. 고원한 절경의 산사는 오직 수행을 위한 공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枕肱懸辯은 〈上堯率吟〉에서 “달 밝아 티끌 마음 밝아지고, 바람 맑아 세속 생각 맑아지네. 은거한 뜻 다른 것 아니니 다만 무생을 배우려 하네”<sup>40)</sup>라고 하였다. 또 그의 〈題蓮峯庵〉<sup>41)</sup>에서 ‘物景이 절로 진세 밖의 뜻이 있으니 석자를 쉬고 참 공부하기에 마땅한 곳’으로 연봉암을 묘사한다. 月渚道安의 〈到靈寂庵初冬晦日偶題〉<sup>42)</sup>, 艸衣意恂의 〈上宿水月庵〉<sup>43)</sup>에서도 法門徒弟들이 모여 아침저녁으로 예배하며 불도를 강설하고 선과 심성을 담론하는 곳으로 사찰을 묘사하였다.

사찰제영시에서 사찰은 깨달음이라는 고원한 이상을 추구, 실현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형상화 된다.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실제로 수행정진하는 모습과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梵海覺岸은 丁巳年(1875)에 南彌勒庵에서 지은 시에서 “가을밤 삼경에 달빛 밝으니 대천세계가 한 가지로 밝구나. 어떻게 하면 마음에 걸림 없는 경지 얻어 불가 경전의 뜻 모두 밝힐까”<sup>44)</sup>라고 하였다. 또 그는 丙戌年(1886)에 만일

암에 쓴 시에서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이웃도 드문 곳에서 하얀 거를 보내니 살아가는 일이 기쁘다’<sup>45)</sup>고 노래한다. 또한 喚惺志安은 “차갑게 밤нат으로 흐르는 물 사랑하여 평생 작은 시냇가 외진 곳에 사나, 그 마음 큰 세계에 있으니 어찌 머물 것인가 드넓은 바다에 이르지 않고는 결코 쉬지 않으리.”<sup>46)</sup>라고 다짐한다. 蓮潭有一은 〈開興寺〉<sup>47)</sup>시에서 의구한 청산과 늪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성찰하기도 하였다.

山自無心碧	산은 절로 무심히 푸르고
雲自無心白	구름은 절로 무심히 희도다
其中一上人	그 가운데 한 스님
亦是無心客	이 또한 무심한 나그네라네

『淸虛集』卷二, 〈題一禪庵壁〉<sup>48)</sup>

사찰 주변의 자연과 하나가 된 물아일체 무심의 경지를 노래한 시이다. 淸虛休靜의 〈山居〉, 逍遙太能의 〈題燕谷寺香閣(其二)〉에서도 이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였다. 無用秀演은 〈伽智山寶林寺〉<sup>49)</sup>에서 보림사의 경관을 멀리서 들은 적은 있으나 직접 보고 크게 놀랐으며 가지산 보림사를 이렇게 묘사한다. “솟은 봉우리 하늘을 찌르고, 달리는 물 땅의 형세를 찢었다. 달은 성긴 대 그림자 그려내고 바람은 노송에 소리를 일게 한다. (聳嶂磨

39) 《韓佛全》 8-346.

40) “月白塵心白, 風淸世慮淸. 隱居無別意, 只欲學無生.” 『枕肱集』 卷上, 《韓佛全》 8-347.

41) “雞園蕭洒近蒼穹, 佳氣淸幽萃此中. 落鴈峯高天接樹, 鸞鵬海闊水浮空. 珠簾迥卷三江雨, 玉牖高開八嶺風. 物景自多塵外趣, 端宜休錫做眞工.” 『枕肱集』 卷上, 《韓佛全》 8-350.

42) “法門徒弟自東南, 麈集神光寺上庵. 講道談禪靈寂室, 焚香扣磬暮朝參. 蠅精桂魄從圓缺, 盃毒弓蛇混吐含. 世味酸嚴唇舌溢, 水雲何處卜精籃.” 『月渚堂大師集』 卷上, 《韓佛全》 9-97.

43) “地位淸高衆壑深, 白雲峯下舊叢林. 塔磨宵漢星傍轉, 雨鎖人寰月上臨. 試向名山問訪古, 偶同良夜細論心. 化城終是非眞境, 寶所應須世外尋.” 『艸意詩藁』 卷上, 《韓佛全》 10-844.

44) “秋夜三更月色明, 大千世界一般明. 安得胸襟無罣碍, 吾家經典悉能明.” 『梵海覺岸詩集』

』卷二(補遺), 〈南彌勒雜詠 其三〉 《韓佛全》 10-1122.

45) “爲靜自心地, 遲留挽日菴. 布衫遮老骨, 茶藥洗殘痰. 海鏡古今一, 居隣南北三. 高朋來結夏, 活計最初甘.” 〈挽日庵丙戌年〉, 『梵海禪師詩集』 卷二(補遺), 《韓佛全》 10-1121.

46) “自愛冷泠日夜流, 平生偏占小溪頭. 渠心在大那堪住, 不到倉溟政不休.” 〈雲門寺若耶溪〉, 『喚惺詩集』, 《韓佛全》 9-471.

47) “名盡信信宿, 料得了前緣. 坐想經過日, 行當三十年. 青山依舊貌, 白髮老諸禪. 自是非生客, 臨歸意黯然.” 『蓮潭大師林下錄』 卷二, 《韓佛全》 10-246.

48) 《韓佛全》 7-687.

49) 『無用堂遺稿』 卷上, 《韓佛全》 9-346.

天面, 奔川裂地形. 月模疎竹影, 風產老松聲)” 그리고나서 “고요한 밤 구름 쌓인 창이 서늘하니, 정신이 또렷해 잠들지 못한다(夜靜雲窓冷, 神清夢未成.)”고 하였다. 산사의 경물이 수행승을 惺惺하게 깨어있게 한다는 것이다. 涵月海源은 <觀音窟>에서 “바다 빛은 대 앞에 드넓고, 파도 소리 굴 속 깊은 곳까지 울리네. 주인은 세상일 잊고, 오직 백구의 마음일세.”<sup>50)</sup>라고 하였다. 관음굴은 강원도 양양군 五峰山에 있는 洛山寺의 부속 암자로 676년(신라 문무왕 16)에 義湘大師가 창건하였으며 紅蓮庵이라 한다. 의상이 관세음보살을 천견한 뒤 창건하고 전단향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어 모셨다고 한다. 海潮音을 통하여 救苦救難하는 관세음보살의 大願이 들렸다는 등 많은 영험담이 전하는 곳이다.<sup>51)</sup> 활연광대하게 툭 트인 푸른 바다, 굴 속까지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걸림없는 무한의 공간과 번뇌의 틈을 주지 않고 부서지는 파도의 굉음, 함월해원은 이때의 정신적 경계를 백구와 같은 마음이라 하였다. 機心을 떨쳐버린 물아일체의 천연스러운 경지를 말한 것이다.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구도자의 삶과 깨달음의 경지를 형상화해 낸다. 이는 불교문학의 분야 중 가장 문학성 높다는 선시의 세계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문학적 성과이기도 하다.

### 3.3 仙界志向

山紫水明한 名區에 위치한 사찰의 경치는 세속의 짐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도 하지만, 휴식의 차원을 넘어 그 황홀경에 도취되어 신선들의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착각에 들기도 한다. 默庵最諤은 西不

思庵에 쓴 시에서 훌륭한 경치에 임한 자신의 심회를 이렇게 토로한다. “뛰어난 경치 말 없이 나를 머물게 하는데,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仙遊를 즐겼던가. 眞을 찾는 좋은 뜻 어디 있는지 알겠느니, 느긋하게 만 리 푸른 바다 떠가는 배를 보네”<sup>52)</sup> 자신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승경은 늘 신선들이 노니는 곳과 같고, 여기에 이르러 眞을 찾는 좋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고 한다. 사찰과 주변의 풍광을 바로 仙界로 인식하고 있는 예라 하겠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제영시를 살펴보자.

階邊庭畔遍生苔	섬돌과 뜰 가에 이끼 두루 퍼졌는데
深鎖松門久不開	소나무 문 굳게 닫고 오랫동안 열지 않네
應是主人爲羽客	아마도 절 주인은 신선이 되어
有時騎鶴月中來	때때로 달 밝으면 학을 타고 오려나 보네
	『霽月堂大師集』 卷上, <宿空寺吟> <sup>53)</sup>

寶樹風霜老	보배로운 나무는 풍상에 늙고
仙樓歲月深	신선의 누대도 세월이 깊구나
石間生虎嘯	바위틈에서는 범의 소리 나고
潭底出龍吟	못 밑에는 용의 소리 나오네
過客烟霞裏	과객은 아름다운 경치를 주머니 속에 넣고
居僧水月心	기거하는 스님들은 물과 달 같은 마음일세
武陵曾不見	무릉도원을 일찍이 보지는 못했지만
此外更何尋	이 밖에 다시 어디에서 찾을까
	『振虛集』 卷一, <新興寺> <sup>54)</sup>

두 수의 시 모두 빼어난 경치로 인하여 사찰을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으로

50) “海色臺前闊, 波聲窟內深. 主人忘世事, 惟是白鷗心.” 『天鏡集』 卷上, <韓佛全> 9-602.

51) 李政, 『韓國佛教寺刹事典』, 불교시대사, 1996, 55쪽.

52) “勝境無言絆我留, 幾人於此作仙遊. 尋眞好趣知何處, 臥看滄溟萬里舟.” <題西不思庵> 『默庵集』 卷初, <韓佛全> 10-6.

53) <韓佛全> 8-117.

54) <韓佛全> 10-170.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枕肱懸辯은 전남 구례군 문척면 오산 정상의 오산암에 쓴 시에서 산 높고 바위 멀어 구름 끝에 닿은 오산암을 세상 밖 신선 세계<sup>55)</sup>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萬景庵에 쓴 시에서 만경암을 일컬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이하고 뛰어난 경치를 배경으로 바위가 신선의 집이 하늘에 우뚝 서 있다고 하였다.<sup>56)</sup> 산꼭대기의 작은 암자를 바로 신선이 사는 집으로 표현한 것이다. 振虛捌關은 金剛庵에서 신선이 사는 玄都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객이 남화경 외우는 소리에 마치 장자의 漆園에 온 것 같다고 읊었다.<sup>57)</sup> 括虛取如是 구름 헤치고 덕주사 오르는 길에 물에 떠오르는 향초가 桃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하고 절에 당도해서는 신선의 뜰 곳곳에서 돌아가는 고라니를 본다고 하였다.<sup>58)</sup> 산사에 당도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서 만나는 물상에서도 신선의 세계를 만난 듯한 감회를 느끼는 것이다. 石巖鼎鑄는 〈投止逍遙山自在庵<sup>59)</sup>〉에서 자재암을 도교의 사원인 ‘琳宮’으로 표현하여 鳥道과 棧橋를 통해 겨우 당도할 수 있다고 입지를 말하고 신선의 집인 양 푸른 구름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55) “山高岩迥接雲端，世外仙都日月閑。石室蕭然僧入乞，不關秋色亂層巒。”〈題鰲山庵〉『枕肱集』卷上，〈韓佛全〉8-349. 鰲山庵은 元曉·義湘·道銑·眞覺 등 네 고승이 수도하였다고 하여 四聖庵이라고도 한다.

56) “巖畔仙扉倚半空，奇觀勝趣甲吾東。門臨渤海波聲壯，棟壓層岑石勢雄。淑氣迥連雲影合，晴光遙接日華濃。興餘攀首蒼茫外，七澤三相指顧中。”〈題萬景庵〉，『枕肱集』卷上，〈韓佛全〉8-350.

57) “玄都何處在，箇裏絕塵喧。翠壁桃千點，清潭月一痕。山高天挂角，松勁石懸根。客誦南華卷，又疑到漆園。”『振虛集』卷一，〈金剛庵〉〈韓佛全〉10-171. 漆園은 전국시대 莊周가 벼슬살이를 하던 곳이라 하나 정확한 지역은 알려지지 않음. 일설에는 지명이 아니고 장주가 蒙邑에서 칠하는 일을 주관하였던 벼슬의 이름이라고도 함.

58) “扶杖穿雲上翠微，暮天松露濕蘿衣。香葩泛水桃源出，細霧隨風石洞飛。苔徑時時逢麝宿，仙壇處處見鸞歸。往古羅王停蹕地，岩頭殘堞尚依依。”〈古德周〉，『括虛集』卷一，〈韓佛全〉10-311. 덕주는 충북 제천군 월악산에 있던 절로 신라 진평왕13년(591) 德周夫人이 창건하여 덕주사라 한다.

59) “鳥道纔通過棧橋，琳宮宛在碧雲消。石氣投窓常月曙，瀑流激石卻春潮。剛喜化工藏絕勝，偏嫌蕩子破閒寥。曉公不作空山暗，花雨誰能感絳霄。”『石巖詩鈔』上.

사찰과 그 주변 풍광을 仙界로 인식하는 한편 작자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심리적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

……………  
望遠西南地  
峯高東北天  
仍師來一宿  
骨爽欲乘仙

조망은 서남쪽 땅으로 아득하고  
봉우리는 동북쪽 하늘로 높이 솟았네  
스님 따라와 하루 묵으니  
뼈 속까지 상쾌해 신선이 되려하네  
『虛應堂集』卷上，〈宿繫缸庵<sup>60)</sup>〉

我上福泉庵  
福泉猶不竭  
掬三聊一嘗  
凡欲換僂骨

내 복천암에 올라보니  
복천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네  
손으로 세 번 떠 겨우 한 번 맛보니  
범속한 탐욕이 신선의 풍골로 바뀌는 듯하네  
『默庵集』卷初，〈題俗離山法住寺 其二<sup>61)</sup>〉

두 시 모두 이른바 ‘別有天地非人間’의 경계로 사찰의 풍광을 인식하고 자신이 신선으로 화하는 의식의 비상을 보여 준다. 白谷處能의 〈摩雲寺<sup>62)</sup>〉시에 강물이 먼 들을 빙 두르고 산세는 먼 하늘을 찌를 듯한 곳에 있는 마운사에서 “돌아가기를 잊고 머무는 사흘 동안 신선이 되었다”고 노래한다. 振虛捌關의 〈入天聖寺<sup>63)</sup>〉, 兒庵惠藏의 〈白蓮社次壁上韻<sup>64)</sup>〉에서는 깊은 산

60) 〈韓佛全〉7-532.

61) 〈韓佛全〉10-3.

62) “瀟瀟摩雲寺，爺孃最上巔。江流圍遠野，峯勢插遙天。卜地仍新構，尋原即舊緣。淹留忘去路，三日作神仙。”『白谷集』卷一，〈韓佛全〉8-312.

63) “十里烟霞洞口深，檜松鬱鬱晚生陰。樵翁翫局忘移足，侍虎看人不動心。橫岫白雲無價紙，繞樓冷澗沒絃琴。憑軒欲驗仙區別，六月清風散夕林。”『振虛集』卷一，〈韓佛全〉10-173.

64) “白蓮金字耀門前，忽憶千秋許飲禪。竹裏孤帆遙見海，石間層笕細分泉。慧公入島無歸日，圓妙修樓不記年。高臥碧雲忘世事，閒蹤要學葛洪仙。”『兒庵遺集』卷一，〈韓佛全〉10-694.

골짜기에서 선계를 증험하고 신선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霽月敬軒은 〈宿佛日庵〉<sup>65)</sup>에서 돌길이 이끼에 덮여 있고 저물녘 안개에 둘러싸인 古寺에서 “꿈을 깬 새벽 사람은 적적한데, 달빛 속 하늘을 스치며 학이 울며 날아가네”라고 한다. 蘇軾의 所作으로 알려진 〈後赤壁賦〉의 孤鶴이 날고 꿈에 도사를 만나 대화하는 그런 몽롱한 신경의 체험과 같은 경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振虛捌關은 “水石은 仙翁의 물건, 雲林은 스님의 집. 깊은 골 봄기운 한가한데, 심산유곡의 사슴이 물 위에 흘러가는 꽃을 줍네”<sup>66)</sup>라고 읊었다. 사찰과 그 주변 자연 경관을 선계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신선의 경계를 느끼는 일련의 선계지향적 정신 작용이 불가와 도가의 몽롱한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할 것이다.

### 3.4 詠史懷古

시대에 따라 불교의 위상이 달랐듯이 사찰의 역사와 이를 바라보는 감회도 그러하다. 고려와 조선 불교의 대비가 그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지내온 세월에 대한 깊은 회포를 꾀진하게 읊은 시보다는, 사찰의 역사와 위용, 출가승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시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각국사 의천의 〈留題三角山息庵〉<sup>67)</sup>·〈海印寺退居有作 四首〉<sup>68)</sup>, 진각국사 혜심의

〈次波根寺板上韻 又〉<sup>69)</sup>, 원감국사 충지의 〈多寶寺吟〉<sup>70)</sup>·〈興龍寺吟〉<sup>71)</sup>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사찰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쇠락한 사찰의 모습에 슬픔을 금치 못하는 내용을 담은 시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담담하게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지만 하는 시들이다.

寂寂閉虛院	적막하게 닫힌 텅 빈 절간
落花三尺深	낙화 석 지나 쌓였네
東風來又去	동풍이 불어와 스쳐가니
月色傷人心	달빛은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하네
	『淸虛集』卷二, 〈過古寺 其一〉 <sup>72)</sup>

낙화가 석 지나 쌓여도 쓸 사람이 없는 텅 빈 옛 절을 지나며 서글픈 심사를 읊었다. 청허휴정은 〈過華嚴寺〉<sup>73)</sup>에서도 “온 산천에 붉은 노을, 가을 풀밭엔 용과 거북이 쓰러져 있네. 오래 된 전각 달빛이 위로하고, 부서진 창엔 바람이 또한 슬프네(山川當落照, 秋草臥龍龜, 古殿月應弔, 破窓風亦悲)”라고 하였다.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에 전소되어 1630년(인조 8)부터

65) “石逕苔封古寺空, 孤雲逝迹暮烟籠. 夢破五更人寂寂, 磨霄鶴唳月明中.” 『霽月堂大師集』 卷上, 《韓佛全》8-117.  
 66) “水石仙翁物, 雲林釋氏家. 洞深春意懶, 幽鹿拾流花.” 〈入慈惠寺〉, 『淸虛集』 卷一, 《韓佛全》10-169.  
 67) “講徹香林訪息庵, 崎嶇松逕撥煙嵐. 當年龍井攀高論, 見景思人恨不堪.” 『大覺國師文集』 卷十九, 《韓佛全》4-562. 이 시의 작자 주에서 중국 유학시절 천태종에 대하여 담론했던 사실을 말하고, 향림사에서 천태의 十不二門을 강론했다고 설명하였다. 유학시절 공부하던 곳과 삼각산의 식암이 비슷하여 생각이 일었다고 하였다.  
 68) “海印去勝虛岳寺, 伽耶還似虎溪流. 遠公高迹雖難繼, 且喜終鳥志已酬.” (其一) 『大覺國師文集』 卷二十, 《韓佛全》4-565.

69) “三韓天地以前庵, 伏在頭流洞府深. 萬古鐘鳴雲水寺, 千秋月掛薜蘿林. 僧歸白石溪聲滑, 鳥度青山樹影沈. 舊號福泉綠底意, 佛暎光射斗中南.” 『無衣子詩集』 卷上, 《韓佛全》6-53.  
 70) “地幽衰草尚蒙茸, 松檜重重碧玉幢. 一榻烟霞留勝迹, 百年香火福吾邦. 空庭得月鋪晴雪, 遠壑來風吼夜江. 衲被蒙頭寒不寐, 壁間蘭焰吐殘缸.” 『圓鑑國師歌頌』 (補遺), 《韓佛全》6-395.  
 71) “城郭摧頽草木深, 當年清蹕駐江潯. 北山霜樹敬華蓋, 南岸烟篁聳羽林. 輦路螢飛封薜暈, 形關禽噪鎖松陰. 秋風破院蟬聲晚, 獨倚欄干感古今.” 『圓鑑國師歌頌』 (補遺), 《韓佛全》6-395.  
 72) 《韓佛全》7-678.  
 73) 『淸虛集』 卷二, 《韓佛全》7-686.

1636년까지 중건하였고, 1699년(숙종 25)부터 1702년까지 장육전을 중건하였다. 청허휴정 입적 후 약 30년이 돼서야 중건을 시작하였으니 청허휴정이 화엄사에 와서 시를 썼을 때는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폐허가 된 상태였을 것이다. 낙화·달빛·낙조·가을 풀·쓰러진 용과 거북·깨진 창 등 사찰 그 자체의 모습만으로도 일세를 품어냈던 조선 최고의 고승인 청허휴정의 깊은 심회를 토로하게 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의 시들은 조선시대 불가문학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몇 편만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虛應堂 普雨의 〈長安寺〉<sup>74)</sup> · 〈鉢淵寺〉<sup>75)</sup>에서는 만고에 변함없는 산골 물과 산을 보고 이들 자연물에 쓸쓸함과 슬픔이 서려 있다 하면서 쇠락한 절간의 모습을 보며 회고에 젖었다. 四溟堂 惟政은 〈福州西原寺〉<sup>76)</sup>에서 지난 왕조의 절이 허물어진 채로 긴 강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천년의 향불은 스러졌고 산에는 저녁노을만이 어려 나그네 홀로 슬퍼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찰 주변의 변함없는 자연에 폐허가 된 사찰을 비추어 보며 사찰이 지내온 세월을 회고하였다.

昇天橋外九蓮池	승천교 밖 구연지
七寶樓臺水底移	칠보로 단장한 누대 물에 어리네
無影塔看還有影	무영탑 보니 도리어 그림자 있고
阿斯來鑑到今疑	아사녀가 지금도 비취보는 듯

『艸衣詩藁』 卷上, 〈佛國寺懷古九首 其二〉<sup>77)</sup>

74) “可貴金朝寺, 嗚呼半已頹。潤聲空浙歷, 山影漫徘徊。有佛香燈暗, 無僧堂殿開。危樓鍾獨遠, 吟賞轉悠哉。”『虛應堂集』 卷上, 《韓佛全》 7-532.  
 75) “律師歸去後, 興替幾春秋。潤激千年恨, 山含萬古愁。碑文苔蝕沒, 龕室月空留。生滅松何在, 蒼蒼白石頭。”『虛應堂集』 卷上, 《韓佛全》 7-533.  
 76) “前朝郭外寺, 零落對長河。古井生秋草, 空樑散曙鴉。千年香火盡, 今夕水雲多。遊子獨悵悵, 亂山生暝霞。”『四溟堂大師集』 卷二, 《韓佛全》 8-50.  
 77) 《韓佛全》 10-835.

이 시는 丁丑年(1817) 六月 慶州에 있으면서 지은 불국사 회고 아홉 수 중 한 편으로 다음과 같은 작자의 주가 있다.

사지에 이르기를, 절 마당에 탑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무영탑이다. 탑을 만든 석공은 당나라 사람이었으며 그 누이의 이름은 아사였다. 그녀가 찾아와 외영지 가에서 보니 절의 당간과 탑은 모두 물에 비쳤지만 오직 절 마당 가운데의 다보탑만이 그림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탑을 무영탑이라고 하였다.<sup>78)</sup>

같은 제목의 다른 시에도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한 인연을 시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시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김대성의 전생과 후생의 일에 대한 사지의 기록을 시의 뒤에 주로 붙였다.<sup>79)</sup>

쇠락한 사찰의 역사를 슬퍼하는 내용의 제영시가 있는 한편, 이와 같이 사찰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불가 사찰제영시의 한 양상이다. 靜觀一禪의 통도사에 쓴 시<sup>80)</sup>에서 전 왕조 때 창건한 영취산 통도사가 동방의 승지였다고 하면서, 경련에서 “고요한 밤 사람도 고요하니 절로 기쁘는데, 오직 한스러운 일은 스님과 절 쇠잔한 것(自忻夜靜人還靜, 唯恨僧殘寺亦殘)”이라고 하였다. 절과 스님이 쇠잔한 것에 서글픈 감정이 이는 듯하지만, 마지막 미련에서 “창건자 자장 율사의 신묘한 힘이 아니었다면 석가세존 신령스런 탑 보기 어려웠을 것이네(不是藏師神妙力, 釋尊靈塔見應難)”라고 하여 비감을 극복하고, 사찰의 창건과 석가세존의 진신 사리를 모신 古刹의

78) “寺志云, 庭有二塔, 一名無影塔。造塔石工唐人, 其妹名阿斯, 尋來在外影池畔, 見宮殿鐘塔, 皆現水中, 唯庭中多寶塔無影, 故因名曰無影塔也。”  
 79) 〈佛國寺懷古九首 其八〉, “生長大成尚有村, 牟梁萬古變浮雲。福安薰發因緣子, 誰遣開師說六輪。” 이 시의 주는 다음과 같다. “寺志云, 宰相金大成, 前生時爲乞人, 有僧漸開, 爲說六輪會, 化緣至福安家, 遂傾施乞貨, 因發願, 其後生爲金大成, 居牟梁村, 今改名浮雲村.”  
 80) 〈題通度寺二首 其一〉, 『靜觀集』, 《韓佛全》 8-28.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括虛取如의 〈楡店寺〉<sup>81)</sup>에서도 절을 세우고 五十三佛을 모신 내력을 전해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읊어 한 편의 詠史詩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의 위상과 사찰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찰제영시의 사찰 수용양상이 달랐다. 또한 배불의 시대인 조선에서 사찰의 쇠락을 탄식하는 회고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사찰의 유구하고 장엄했던 역사를 시로 승화시키는데도 힘을 기울였다.

#### 4. 맺음말

본고는 寺刹文學 연구의 일환으로 그 중심을 이루는 佛家の 寺刹題詠詩에 대하여 논하였다. 고려에서 근대에 이르는 약 100종의 불가 문집 소재 사찰제영시를 대상으로 그 주요 인물 약 30명의 시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읊은 제영시라도 작자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다양한 제영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기존 사대부 계층 작자 중심의 연구에 상보적인 입장에서 불가의 사찰제영시를 연구하였다.

역대 불가 사찰제영시의 주요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감해 본 바, 그 문학적 지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2장에서 사찰은 禪心과 詩思가 함께 무르익어가는 공간이며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성과가 적지 않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찰과 그 주변 자연을 형상화한 제영시를 네 가지 양상으로 논하였다.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산사는 세속의

먼지를 씻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탈속한정의 공간이었다. 이로 인하여 시문은 세속과 대비되는 眞의 세계로서 사찰의 의미와 사찰 자체의 은둔적 입지, 풍광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사찰의 淸遠한 경계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도량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데, 修禪衲子로서 수행과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제영시에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출가수행승의 본령에 충실한 불교시와 더불어 선계 지향의 제영시들도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사찰의 아름다운 승경을 선계로 형상화 한 작품과 시인 자신이 신선이 된 듯한 정신 경계를 형상화 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불가와 도가의 몽롱한 경계를 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찰은 불교의 역사를 표상하는 곳이다. 고려시대의 제영시에서는 출가승의 자부심을 드러낸 경향의 시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읽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쇠락한 사찰의 모습을 당시 불교의 입장과 중첩시키면서 비감을 드러낸 제영시들이 있고, 사찰의 유구한 역사를 시로 승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볼 수 있다.

불가의 사찰제영시는 사찰문학의 근간을 이룬다. 사찰제영시에 대한 더 폭넓고 진전된 연구와 작자의 유불을 막론하고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층위의 사찰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括虛取如, 『括虛集』  
 錦溟寶鼎, 『大東詠選』  
 大覺國師 義天, 『大覺國師文集』  
 梵海覺岸, 『梵海禪師詩稿』  
 無用秀演, 『無用堂遺稿』  
 眞覺國師 慧謙, 『無衣子詩集』

81) “梵宮初創伏龍潭, 楡窟金仙五十三. 石舫懸緣遊海北, 金鐘安佛到城南. 狗搖嶺上雲光瑞, 鳥喙泉中水味甘. 主守虛春爲護法, 至今遺像在伽藍.” 『括虛集』 卷一, 《韓佛全》 10-310.

默庵最訥, 『默庵集』  
 白谷處能, 『白谷集』  
 栢庵性聰, 『栢庵集』  
 浮休善修, 『浮休堂大師集』  
 四溟惟政, 『四溟堂大師集』  
 石顛鼎鎬, 『石顛詩鈔』  
 逍遙太能, 『逍遙堂集』  
 兒庵惠藏, 『兒庵遺集』  
 蓮潭有一, 『蓮潭大師林下錄』  
 圓鑑國師 冲止, 『圓鑑國師歌頌』  
 月城費隱, 『月城集』  
 月渚道安, 『月渚堂大師集』  
 仁嶽義沾, 『仁嶽集』  
 靜觀一禪, 『靜觀集』  
 霽月敬軒, 『霽月堂大師集』  
 中觀海眼, 『中觀大師遺稿』  
 振虛捫關, 『振虛集』  
 清虛休靜, 『清虛集』  
 艸衣意恂, 『艸意詩藁』  
 枕肱懸辯, 『枕肱集』  
 鞭羊彥機, 『鞭羊堂集』  
 涵月海源, 『天鏡集』  
 虛應堂 普雨, 『虛應堂集』  
 喚惺志安, 『喚惺詩集』

『新增東國輿地勝覽』

金甲起, 『韓國題詠詩研究』, 『한국문학연구』 12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89.  
 12.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寺刹) - 사찰제영시(寺刹題詠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조선후기 寺刹題詠詩攷」, 『한국언어문학연구』 제48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7. 2.  
 金南基, 「지리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그 문학」, 『韓國漢詩研究 7』, 1999.  
 김석태, 「梵海 覺岸의 濟州 旅行과 紀行詩」, 『한국언어문학』 제55집, 2005. 10.  
 ——, 「湖南의 寺刹 題詠詩-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41호, 2007. 12.  
 金惠淑, 「智異山の 漢詩的 反響」, 『韓國漢詩研究 7』, 1999.  
 閔丙秀 외,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태학사, 2001.  
 ——, 『韓國 漢文學 散藁』, 태학사, 2001.  
 朴守川, 「智異山の 寺刹 題詠 漢詩」, 『韓國漢詩研究』 7, 1999.  
 용환진, 「洛山寺 題詠 漢詩 研究」, 『한문고전연구』 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5.  
 李東述 編, 『韓國寺刹寶鑑』, 우리출판사, 1997.  
 李 政, 『韓國佛教寺刹事典』, 불교시대사, 1996.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 The research of Buddhist's temple-poems

Kim, Seok-tae

Man lives in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his surroundings. Surroundings in human life have various layers including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relations. Literature also differs its characters according to its surroundings. Especially a Chinese poem whose structure is based on meeting of human and nature can vary in accordance with poet's perception in nature. Most of Korean temples locate in nature with beautiful hills and pure water for a background. Therefore many poets and artists have used temples as a place of literature and creation.

This paper goes into the study of Chinese poems connected with temples which are Korean brilliant relics and also beautiful nature environment. In general, these Chinese poems are called as temple-poems. Not a Confucianist's but a Buddhist monk's temple-poems are studied in here.

First, temples represented in temple-poems of Buddhist literature were breathing spaces contrasted to the mundane world. This breathing time pursues mental calmness rather than break after labor. Second, poet, actually who was just a Buddhist monk, thought beautiful nature of temples as the world of Taoists

as if he had been one of them. Third, Buddhist monks' duty is to get spiritual awakening through out continuous self-training. That is sön(Buddhist meditation). Temple was surely the place where Buddhist monks got enlightenment and examined themselves. Finally, whole history of Korea and Buddhism is kept in temples. Confucians' temple-poems are mainly appreciating the beauty of nature. On the other hand, Buddhist monks' temple-poems aimed at lofty spirit by entering deep into the nature.

**Key words** : temple-poems, Buddhist literature, sön(Buddhist meditation), nature, a place of literature